WILKINSON의 런던, 모든 것을 드러낸 멈춤

다음 날은 완전한 자유의 하루였다.

약속 없음.

일정 없음.

운전기사 없음.

의식 없음.

나는 피커딜리 서커스를 걸었고, 내 눈길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.

소호.

젊었을 때 나는 그곳들에서 환대를 받았다.

손님으로서만이 아니었다.

관찰자로서도.

반가운 손님.

드러내 놓고 반가운.

해가 지나면서, 나는 약점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님을 배웠다.

이해해야 할 것이다.

그리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,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 그것을 키워 줄 수도 있다.

나는 서두르지 않고 걸었다.

런던은 여느 때보다 조용해 보였다.

어쩌면 도시가 변했는지도 모른다.

어쩌면 내가 변했는지도 모른다.

아니면 그저 Maggy의 영향이었는지도.

그녀를 만난 뒤로, 거리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.

건물마다 기억 하나를 지키고 있는 듯했다.

도시의 구석구석이 이제는 그곳에 없는 누군가의 것인 듯했다.

처음으로, 나는 런던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.

나는 런던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.

그리고 불빛과 관광객들과 내 젊은 날의 오래된 유령들 사이로 피커딜리 서커스를 건너면서, 나는 이것이 쉬는 날이 아님을 알았다.

그것은 그저 한 수업과 다음 수업 사이의 막간이었다.

다음 날 나는 이모를 다시 만날 것이었기 때문이다.

그리고 그녀와 함께, 아마도, 아직 아무도 다 이야기하지 못한 한 이야기의 또 다른 조각을.

Ferdinando